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5개소 지정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약국, 식당, 미용실 등 5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24일 현관 전달식을 진행했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치매안심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총 26개소 가맹점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무한리필두판 정읍점 △미강마트 △현대의기상사 △순수미용실 △도안약국 등 5곳이 지정됐다. 신규 지정 사업주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치매극복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은 개인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01~79 또는 90~99)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치매안심센터(☎063-539-696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도시가스·군산상의, 사랑의 연탄 나눔

군산시는 군산도시가스(주)와 군산상공회의소 임직원 40여 명이 27일, 동절기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지원 성금 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째 이웃을 위해 나눔의 정을 품소 실천해 주신 군산도시가스 및 군산상공회의소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성금은 군산시 난방취약계층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호원대, 제1회 호원솨폼 콘텐츠 시상식

호원대학교 입학홍보처는 지난 24일 총장실에서 제1회 호원솨폼(Short-form)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솨폼 콘텐츠를 이용해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극대화하고자 입학홍보처에서 새롭게 선보인 이벤트다. 호원대 전체 재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본교를 배경으로 한 1분 미만의 콘텐츠 영상으로 제출받아 지난 17일 호원대학교 공식 SNS계정에 탑재 후 22일 11시를 기점으로 조희수를 산정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강희성 총장을 비롯한 신상열 입학홍보처장 등이 참석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과 인기상 5팀이 선정, 총 8팀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지성(스포츠무도학과 4년)학생은 "학교에서 동기들과 추억을 쌓고자 솨폼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제출했는데 최우수상까지 받게 돼 기분이 너무 좋다"며 "앞으로 이런 소재의 공모전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본사 내방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

사랑의 김장나눔 연합봉사활동

정부 '2023 국민대통합' 일환... 전북 등 전국지자체 동시 개최

전북도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27일 전북도청 야외주차장에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연합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연합봉사활동은 연말 소외될 수 있는 이웃 등에 나눔과 사랑을 베풀고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마련됐으며, 전북도, 전북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한국불교대교종 전북교구, 원불교 봉공회, 전주교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4대 종교계,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등 각계 각층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함께 담긴 800포기 절임배추에 정성껏 양념을 한 김장김치를 350박스를 담아 도내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아동,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같은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2023 대통합 김장, 따뜻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전국 지방



자치단체와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해 국민대통합을 위해 전국 동시 개최돼 의미가 남다른 행사이다. 전북도와 별개로 전주시에서도 자원봉사 10여개 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주시 화합의 김장과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김재훈 기자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 온열매트 나눔 행사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 행복이음봉사단(단장 이완승)은 지난 24일 상전면에서 '진안농협과 함께하는 사랑뿔 온열매트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NH농협 진안군지부 변성섭 지부장과 진안농협 김문중 조합장, 이옥순 상전면장, 농협임원, 행복이음봉사단원 등이 참여해 상전면 75세 이상 원로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문중 조합장은 "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합원들이 포근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진안농협은 농업인과 동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회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완승 단장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지금의 농업이 있고, 직원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에너지 절약... '제40회 전국에너지 절약·스피치·시낭송대회' 성료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제40회 전국에너지 절약·스피치·시낭송대회'가 지난 25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렸다.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제40회 전국에너지 절약·스피치·시낭송대회'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연중으로 갖는 행사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살리자는 취지로 행사를 열고 있다.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본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 전국 연사 92명, 일반 청중 150여명, 임원 15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원진(전주)씨에게 돌아갔다. 전체 최우수상에는 김평호(군산)·김성동(대전)씨가 차지했다. 이영삼(김제)·은종광(정읍)씨, 특상에는 정차봉(군산)씨가 웅변부 대상을 수상받았다. 스피치부 대상에 서강원(전주)·서해경(여수)·김용호(익산)씨, 시낭송부 대상에 이선덕(여수)·조한규(전주)·오영미(충주)씨가 차지했으며, 김연희(전주)·최현식(김제)·두창균(익산)씨는 강사시연부 대상을 수상받았다. 학생부는 이현지(신흥중1) 학생이 차지했으며, 염유라(남원 월락초6) 학생은 최우수상을, 염준연(남원 월락초4) 학생은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유치부는 노시우(새싹어린이집)·김규민(새싹어린이집)·박도하(한산초 부설유치원) 어린이가 각각 대상, 특상,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주요 공로자 표창으로 오이순씨가 전북교육감 표창을, 김평호씨가 전주시장 표창을, 정영수씨가 전주시의회 표창을, 임선희·김복자씨가 주최단체회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본 대회 대회장인 김양욱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환경에서 국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운동에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생은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유치부는 노시우(새싹어린이집)·김규민(새싹어린이집)·박도하(한산초 부설유치원) 어린이가 각각 대상, 특상,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주요 공로자 표창으로 오이순씨가 전북교육감 표창을, 김평호씨가 전주시장 표창을, 정영수씨가 전주시의회 표창을, 임선희·김복자씨가 주최단체회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본 대회 대회장인 김양욱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환경에서 국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운동에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정희석 단장, 마약근절 캠페인 동참

우석대학교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전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위험성을 함께 공유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에 동참한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달에 이 참여자로 박진상 효사랑전주요양병원장과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을 추천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내년도 지역사회보장 증진 시행계획 심의

남원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예산 및 성과 지표, 세부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수립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과 세부 내용을 유지하되 각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8개 추진전략, 42개 세부 사업(8개 중점 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농어촌공, 노인 일자리 창출 도시락 식사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응표)는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회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도시락 배달'로 지역 내 취약계층 식사를 지원 하고 있다. 특히 부안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대한노인회 부안지회와 함께 독거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으로 부안지사가 도시락 제작비용 일부 지원하면, 노인들이 활동비용을 드리는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제작·배달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진행된다는 것. 부안지사는 부안을 내 치매·독거노인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로 작지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응표 지사장은 "농촌 지역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건강 개선과 외로움 해소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임실정신건강복지센터,예원대와 청년 건강증진 협약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대과)와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종합서비스센터(센터장 서재영)가 청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골자로 △청년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적극 연계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상담, 교육 등 공동사업 및 상호 홍보협력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 선별검사,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캠페인, 자살위기사단,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지난 8월 음식점에서 손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즉시 달려가 상태를 확인 의식과 호흡이 없자 119신고 및 가슴압박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청년 심폐소생술에 힘쓴 인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자발순환회복 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운 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하트세이버 인증식에 참가한 수혜자의 가족은 "가족이 심정지에 발생한 자리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세분이 계셨던 것이 큰 행운이다. 수고해주신 세분과 출동한 구급대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제공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은 지난 24일 관내 농업인 조합원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전북과학대학교,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정읍남매안경원, 정읍시 농·축협,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는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검안·돌보기 지원 등 웰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농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 농업인 실익 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아산 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혈압, X-ray, 심전도 등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했으며, 정읍시보건의료 건강생활과 예서는 구강 건강을 위한 불소도포,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사진을 제공하였으며, 정읍남매안경원에서는 개인별 검안 후 맞춤형 돋보기 및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 당일 농협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푸드트러커(어묵차)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맛있는 어묵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따뜻함을 나누었다. /정읍=김대환 기자